

광주 제조업 4분기 체감경기 ‘흐림’

내수 침체·대내외 경영환경 불확실성 원인
경제 위해 ‘고용·노동정책 탄력적용’ 시급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올 4분기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141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9년 4분기 기업경기 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BSI가 전분기(87)보다 1포인트 하락한 ‘86’으로 집계됐다. 응답 분포를 보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업체가 41.8%(59개사)로 ‘호전’ 예상 업체 27.7%(39개사)보다 많았다. 특히 올 3분기(33.6%·45개사)보다도 그 비중과 업체 수는 모두 증가했다. BSI는 기업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기준치(100) 미만이면 향후 경기

가 전 분기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뜻하고, 반대로 기준치 이상이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제조업 체감경기가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미·중 무역전쟁 및 일본 수출규제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내수 불황과 고용 노동 및 환경 안전 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광주상의 측은 분석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의 4분기 신규 채용계획은 ‘없다’는 응답이 50.4%(71개사)로 나타난 반면

채용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22%(31개사)에 그쳤다. ‘올해 영업이익 목표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목표치에 미달할 것’이라는 의견이 58.9%(83개사)로 가장 높았고, ‘초과 달성’할 것이라는 응답은 1.4%(2개사)에 그쳤다.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로는 ‘내수시장 둔화(43.4%)’를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았으며, ‘미·중 무역전쟁 등 보호무역주의(12.0%)’, ‘환율 유가 변동성 심화(9.0%)’, ‘중국 경제둔화(7.2%)’, ‘기업 관련 정부규제(3.6%)’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과 비교한 올해 투자 추이에 대해서는 ‘불변 56.0%(79개사)’, ‘악화 30.5%(43개사)’, ‘호전 13.5%(19개사)’로 조사됐다. 투자 악화 이유로는 ‘불확실성 증대로

소극적 경영(65.1%)’, ‘원자재값 변동성 확대(20.9%)’, ‘국내시장 포화로 투자처 부재(7.0%)’,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2.1%)’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로는 ‘고용 노동정책의 탄력 적용(44.0%·62개사)’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자금조달 유연화(24.8%·35개사)’, ‘과격적 규제 개혁(19.9%·28개사)’, ‘R&D, 인력 지원 강화(11.3%·16개사)’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광주상의 관계자는 “내수 침체와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수 확대와 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노동정책 개혁, 자금조달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해양에너지는 지난 14일 신입사원 8명에 대한 입사식을 가졌다.

해양에너지, 청년고용 문제해결 ‘앞장’

신입사원 입사식 개최...올 들어 두 번째

㈜해양에너지가 청년고용 문제해결과 지역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15일 ㈜해양에너지에 따르면 지난 14일 신입사원 8명에 대한 입사식을 가졌다. 지난 4월 6명의 신입사원 채용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입사식이다. 이번엔 새롭게 ㈜해양에너지의 가족이 된 8명의 신입사원들은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전 면접과 임원 면접을 거쳐 입사해 다양한 인턴십 과정 등을 거친 후 영업 및 안전관리 분야에 배치됐다. ㈜해양에너지는 또 관리·기획·사업전략·IT 분야 인턴 7명을 선발, 인턴십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김형순 사장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발된 신입사원들이 회사의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젊음과 패기를 바탕으로 회사의 비전인 ‘고객과 함께 미래를 밝히는 친환경 해양에너지’ 달성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 사장은 이어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종합에너지기업으로서 지역 사회와 회사, 구성원이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 사랑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에너지는 최근 지속적인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통한 매출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9 지역산업진흥 유공’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박은성기자

전남농협, 서비스마케팅 역량 강화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15일 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전남 관내 농축협 마케팅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금융 One-Day Class교육과정’을 개최했다. ‘One-Day Class 교육과정’은 농축협 임직원의 서비스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한 성공적인 경영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올해 새로 신설된 지역본부 단위 1일 집합교육이다. 이날 교육은 전남 관내 농축협 마케팅 전문가 50여명이 ‘두배로 성과내는 마케팅프로모션’과 ‘성공을 부르는 고객응대기법’ 강의를 청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마케팅 실습 시간을 가지며 2019년 하반기 전남농협 상호금융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석기 본부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마케팅 역량이 절실한 때”이라며 “긍정 마인드와 끊임없는 마케팅 역량 증대로 적극적인 고객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수기자



멋쟁이 유혹하는 ‘앵클부츠’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신세계 3층 제화 매장에서 가을 감성과 어울리는 다양한 앵클부츠를 선보이고 있다. 앵클부츠는 발목을 감싸 주는 디자인으로 가을부터 겨울까지 특유의 멋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 준다. /광주신세계 제공

9월 무역수지 10억7천500만달러 흑자

광주·전남지역 9월 무역수지가 10억7천5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5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9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같은달보다 5.3% 감소한 38억9천만달러, 수입은 17.0% 감소한 28억1천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과 수입은 각각

8.6%와 6.1%가 각각 감소해 무역수지 기준 56억8천5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같은달보다 8.3% 감소한 10억5천만달러, 수입도 2.1% 감소한 4억7천8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5억7천200만달러 무역흑자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0.6

%·기계류(2.4%)·타이어(2.2%)는 증가한 반면 반도체(17.9%)·가전제품(25.4%)은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1.4%)·고무(8.2%)·화학품(1.8%)는 늘었고, 가전제품(0.1%)·기계류(51.3%)는 줄었다. 전남지역 9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1% 감소한 28억4천만달러, 수입은 19.5% 감소한 23억3천7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

광주 5억7천200만달러
전남 5억300만달러 기록

수지는 5억3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27.8%)·기계류(1.1%)가 증가했으나, 화학품(9.6%)·석유제품(10.6%)·철강제품(11.2%)은 감소했다. 수입은 철광(54.4%)은 늘어난 반면 원유(17.5%)·석탄(51.5%)·석유제품(36.0%)·화학품(21.7%)은 줄었다. /박은성기자

금호타이어, 트럭·버스 타이어 무상점검

17-18일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금호타이어는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대형 트럭 및 버스를 대상으로 ‘타이어 무상점검 서비스 및 안전운행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송산포도(평택방향), 여주(강릉방향), 신탄진(서울방향), 청도(부산방향) 등 전국 4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행된다. 해당 휴게소를 방문하는 트럭, 버스 운전자들은 금호타이어의 전문가들로부터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 점검, 밸런스 점검 등의 타이어 안전점검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타이어 안전관리요령 안내 및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며, 방문 고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임후성기자

상점 전기요금 줄이는 4가지 방법

- ① 냉·난방 중일 때는 상점 문이 닫혔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② 개방형 냉장, 냉동 전열장은 비닐 커튼을 설치하여 효율을 높여주세요.
- ③ 전자제품과 콘센트, 멀티탭 등을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을 사용하세요.
- ④ 영업 종료 후 간판을 꺼두시면 시간당 0.5kWh의 전력을 아낄 수 있어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프리미엄 배달대행 서비스 VROONG(부릉) 함께 일할 가족을 찾습니다.

가맹점·전입기사 모집 (오치동,삼각동,일곡동,매곡동)

대한민국 대표 인터넷
네이버가
최대주주로 투자한
우량 중소기업
VROONG

☎ 제휴문의 1800-8255 ☎ 문의 010-5807-0758

- ☑ 고정비는 줄이고 배달매출은 상승
-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절세 효과
- ☑ 주소 입력이 필요 없는 편리한 부릉POS연동
- ☑ 배송 전 과정을 책임지는 통합관제센터 운영
- ☑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는 배송 라이더 브랜딩
- ☑ 유연한 자동 배차 솔루션 보유
- ☑ 주변 상권 분석을 통한 상점 컨설팅 제공



부릉일곡지점 지사장 최영철

네이버
최대주주